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1. 4. 23.(금) / 총 4매(본문4)	
담당부서 도로관리과	담당자	• 과장 나웅진, 사무관 김대곤, 주무관 김선호 • ☎ (044) 201-3911, 3918	
보 도 일 시	2021년 4월 2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5.(일) 11:00 이후 보도가능		

전국 교통량 첫 1% 감소...버스는 38%로 크게 줄어

- 20년 전국 교통량·도로현황 통계 발표...코로나19 여파로 큰 폭 감소 -

- 전국의 교통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2%씩 증가였으나, 2020년은 코로나-19 영향으로 전년대비 전체 교통량이 처음으로 1% 감소하였다. 특히, 버스 교통량은 38.7% 감소하였다
- 국토교통부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는 2020년 12월 기준의 전국 교통량을 차종별, 도로 종류별 및 월별, 지역별, 다양한 교통현황 통계를 집계하여 27일에 발표하였다.
- 차종별 교통량은 승용차 72.2% > 화물차 26.2% > 버스 1.6% 순으로 나타났으며, 2019년과 비교 시, 화물차의 교통량은 2.2% 증가한 반면, 버스의 교통량은 38.7% 감소하였다.

* 전년대비 차종 증감률 : 승용차 0.9%↓, 버스 38.7%↓, 화물차 2.2%↑



○ 버스 교통량은 코로나-19의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, 관광, 워크숍 등의 전세버스 운행이 전년 대비 38.7%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○ 반면, 화물차 교통량은 코로나-19 영향으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집중으로 물류 수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.2%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□ 도로의 종류별(일평균교통량) 차량 증감률은 고속국도 2.1% 감소, 일반국도 0.7% 감소, 국가지원지방도 0.8% 감소한 반면, 지방도는 2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□ 월평균 일교통량은 코로나-19가 심각했던 2월~4월, 8월, 12월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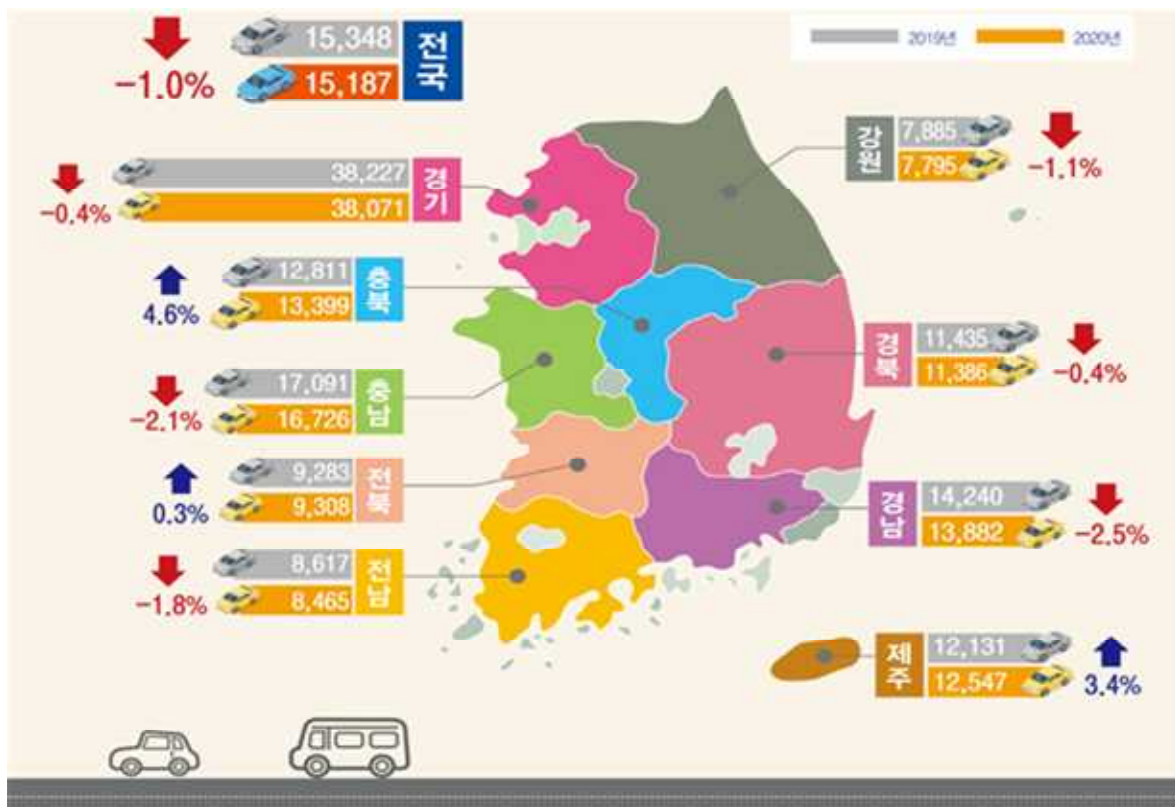
○ 고속국도 월평균 일교통량을 살펴보면, 1월에는 전년대비 7.1% 증가하였던 반면, 2월~4월에는 약 10% 감소하였으며,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10월에는 전년대비 3%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

- 일반국도의 경우에도 2월~4월, 8월, 12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

- 지역별 교통량을 비교해본 결과 2020년도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은 코로나-19의 영향으로 경상남도(전년대비 2.5%↓), 충청남도(전년대비 2.1%↓), 전라남도(전년대비 1.8%↓)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.



- 전국의 도로 연장은 11만 2,977km로 꾸준한 증가(0.7%) 추세로 전년대비 약 1,600k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- 전국 도로를 성인*이 걸어**가면 약 3년이 소요되며, 서울은 80일, 제주도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일주가 가능하다.

* 성인 평균 보폭 약 0.7m, 평균 보행 속도 약 4.3Km/h.

** 서울 8,317km(80일), 제주도 3,211km(27일)

- '도로교통량 통계연보'와 '도로현황 통계'는 도로, 교통, 국토,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, 연구소, 대학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,

- 「국토교통 통계누리(<http://stat.molit.go.kr>)」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도로현황 정보시스템(<http://www.rsis.kr>),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(<http://www.road.re.kr>)을 통해서 자세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김대곤 사무관(☎ 044-201-3911), 김선호 주무관(☎ 044-201-39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